

# 김제 금산사, 자비와 보살행 실천 다짐

## 제1411주년 개산대제 봉행

전라북도의 대표적 미륵성지인 김제 모악산 금산사(회장 태공월주 주지 원행)가 1411주년 개산대제와 보살계 합동 수계법회를 10월 16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김진수 전북교사단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최규성, 장세환 신진 국회의원, 이진식 김제시장, 송하진 전주시장 등 불자들과 지역 기관장 등 3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역대 금산사에서 수행하신 조사스님들에 대한 다례제에 이어 범종타종과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이날 금산사 개산대제는 축원, 금산사 연혁소개, 역대조사스님 행장 소개에 이어 축사, 법어의 순으로 이어지며 금산사를 창건한 진표율사의 창건정신을 계승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보살정신 실천을 다짐했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제불보살님과 역대조사스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수행과 전법, 대승 보살불교 운동을 실천하고 완성시키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신명나고 살기 좋은 사회는 기록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실천돼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금산사 창건 1411주년 개산대제에 임해 수승한 공덕을 쌓는 보람찬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개산 1411주년을 맞은 금산사는 국난의 위기를 맞아 외적에 맞서 싸운 뇌곡처영 대사와 같은 스님들의 충정이 서린 호국불교의 도량이다”고 소개하고 “현재 범 조계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도 스스로 부처임을 깨달아 부처님답게 살아가자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의 연장선상이다”며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정법구현의 원력이 활화산처럼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설했다.

한편, 그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금산사 성보박물관 개관식도 이날 열렸



금산사는 개산대제를 봉행하고 자비와 보살정신 실천을 다짐했다.

다. 보물 제25호 금산사 5층석탑의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보물 제421호 실상사 약수암 목각탱화 등 수백 점의 문화재들이 일 반에 공개됐다.

금산사 성보박물관은 금산사와 말사의 문화재급 성보수백점이 보관돼 있으며 선 별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된다.

이날 개산대제에는 완주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불자노동자 50여 명과 임실 제6탄약창 군장병들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으며, 오후에는 보살계 합동 수 계법회와 형형색색의 등을 밝혀 중생의 마음 자비롭게 하는 관등법회가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도지사

# 조계종 최초 해외교구 지정 해외포교 조직화 Start

## 석원(휘광) 스님, 조계종 美동부교구 교구장 임명

“조계종 최초의 지정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종단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뉴욕 불광선원 주지 석원(휘광) 스님(사진)이 10월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미국동부 해외특별교구 교구장 임명장을 받았다. 그동안 해외 포교는 스님들 개인 원력에 의지해 활성화의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 종단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사람과 스님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석원(휘광) 스님도 이번 교구 지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스님은 “그동안 해외 사람들은 도움 없이 독자적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다보니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번 교구 지정으로 해외 사람 및 스님들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석원(휘광) 스님은 지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고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73년 ~ 1975년 삼막사 강원, 1978년~1979년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총무, 2007년 10월 16일 미국 뉴욕 불광사 주지를 지냈다. 1979년에는 조계사 삼막사 30만평 환수업적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지정된 미국동부 해외특별교구는 미국 동부지역 16개주와 캐나다 동부지역 6개주를 담당한다.

미국 동부 16개 지역은 뉴욕, 뉴저지,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메인,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버몬트,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 버지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델라웨어 등이다.

캐나다 동부지역 6개주는 온타리오(토론토 포함), 퀘벡,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등이다.

그러나 지역이 넓어 같은 교구에서도 생활권 물리적 거리가 상당하다. 교구는 설립됐지만 서로 자주 만나면서 교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석원(휘광) 스님은 “같은 교구로 묶여 있지만 거리가 멀어서 사람 간 교류의 어려움이 있다. 이메일이나 전화 같은 통신 수단을 적극 활용해 연락을 취하며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계종 미국 동부 해외특별교구 뉴욕·뉴저지 등 동동부 16개주 온타리오 등 加동부 6개주 관할

스님은 교구장으로서 해외 포교 스님들의 법망 인정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유학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의 경우 법망을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해외 유학을 온 스님들을 위한 장학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장학제도를 통한 인재 육성은 한국 불교 세계화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꼽힌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 각 사찰들 형편도 좋지 못해 당장 분담금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석원(휘광) 스님은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각 사찰들과 논의를 통해 모색해 갈 예정이다.

석원(휘광) 스님은 “종단의 물질적 지원보다 심리적 지원이 더 큰 힘이 된다. 그동안 스님들 개인 원력에 의지해 현지에서 포교 활동을 펼치다보니 스님들이 ‘외톨이’라는 생각을 들 정도였다. 해외 포교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목숨 다하도록 산목숨 죽이지 말라”

## 태고종 수계산림 수계식 봉행

“이 몸이 목숨을 다하도록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 이것이 사미 사미에게이니 받아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지키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주지 경담)에 중앙금강계단을 열고 제36기 합동수도 수계산림 수계식을 10월 19일 봉행했다.

전계아사리 총무원장 인공 스님, 교수아사리 총회회장 영우 스님, 갈마아사리 중앙사정원장 윤국 스님을 계사(戒師)로 진행한 수계식에는 전체 96명(사미 61명, 사미니35명)의 행자가 참여했다.

특히 이날 수계행자는 9월 7일 행자 소양 및 면접시험을 치른 후 3주간의 연수교육을 통해 예경의식,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아나빠나사띠 등을 이수했다.

또한 3주간 매일 새벽 3시부터 새벽에 불과 경근, 강의, 운력, 참선수행, 저녁에 불 및 참회 정진 등의 교육일정과 수계식에 앞서 18일에는 경내 중간부도탑에서 대웅전앞 특설도량까지 1.2km를 일보일배로 진행했다.

타종과 종사이원으로 시작된 수계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공로패 수여, 표창장 및 상장수여에 이어 수계의례에 따라 거창한



연비의식을 받는 행자승

(學香讚), 청성(淸聖), 체발(剃髮), 연비의식이 진행됐다.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심선계를 설(說)하면서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어 많은 이들의 모범이 되고, 부처님의 법을 잘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수계식에 앞서 경담 스님은 인사말에서 “출가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정신으로 사회중생을 위해 봉사자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정통종단의 후예로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불교의 주자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계식을 마친 태고종 스님들은 종립 동방불교대학과 선암사 전통강원, 보덕사 비구니전문강원 등 태고종의 공식 인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갖는 스님이 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광주생명나눔, 무등산 희망걷기대회

## 11월 6일 청풍쉼터에서 열려

난치성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를 위한 희망걷기대회가 무등산에서 개최된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광주흥사단과 공동으로 11월 6일 오전 11시부터 제4수원지인 무등산 청풍쉼터에서부터 원호사에 이르는 5.35km의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3회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소아암 환우와 가족, 청소년, 광주시민들이 함께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더 밝고 맑은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매년 500여 명의 청소년과 광주시민이



지난해 걷기대회 때 참가자들

참여하는 행사에는 걷기 외에도 문화공연, 백혈병환우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전하기, 장기기증희망등록접수, 헌혈증서 모집 및 모금 캠페인이 진행된다. (062)234-6602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한국 제1의 전법지역으로 거듭나길

## 호남불교 포교결집대회 개최

호남지역 불자들의 포교결집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과 호남지역 6대 본사 협의회는 10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광주염주체육관에서 ‘다시 함께 세상과 함께’라는 주제로 호남불교포교결집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포교결집대회는 올해를 호남불교 중흥원년으로 삼고 한국 제1의 전법지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염원으로 개최된다. 결집대회에서는 3000여 불자들이 모여, 합승으로 부처님 전에 예불과 한글금강경 독송이 이뤄진다.

이와 호남지역 포교영상과 호남포교 활성화의 염원을 담은 발원문, 전도 선인이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량에 휘나햇 온열요법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양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감성책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 100% 국내산 참외나무 진액 참외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외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외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웃에도 고품질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호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외를 만들었습니다.

▶웃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웃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외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